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지혜를 전해준 70인 제자 솔로몬 -복음으로 여는 잠언-

잠언 1:1-5, 골로새서 2:3

정윤돈 목사님

* **잠:1-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 **골: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천하 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후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삼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깨끗케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소중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이 소중한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소중한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도전해야 할 미션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다. 솔로몬 이름의 뜻이 ‘평강, 평화’에서 나온 것이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왕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들에게 본 받아야 할 점과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는 진정한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살리는 지혜와 지식의 플랫폼, 파수대, 영적인 안테나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능가하는 3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만 삶 속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잠언 안에는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꼭 붙잡아야 할 많은 지혜와 지식과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들은 붙잡을 때 70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70인 제자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말씀하신다. 정의롭고 공

의로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일성이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와 믿음에 관계된 지혜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첫 번째에서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잠언에는 구원과는 관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빛과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더 넓게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1) 첫 번째 지혜는 부모님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는 인간들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지혜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사탄이 결박될 것이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이 다 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되면 결국 다 구분이 된다. 결국에는 그 영적 순종의 자세를 갖춘 사람에게게는 하나님이 직접 다른 복을 주신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다.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개인과 후대에게 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이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더라도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성공자이다.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시작이며 끝,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안디옥교회는 전 세계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응답받아서 예루살렘교회를 도와주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 류목사님께서 복음은 기도라고 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가 없다. 그리스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야 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

(2)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이야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어서 잠언 1장 15절에는 “내 아들이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잠언에서는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다. 이러한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비시키고 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로움과 빛을 선택해야 한다.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꾸지람)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심지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지람, 징계의 그 이면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겸손과 교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①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② 잠언 11장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③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준귀의 길잡이니라”

④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준귀의 길잡이니라”

⑤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5) 또한 잠언은 다양한 교훈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 그 요절들은 말씀드리겠다. 지혜의 말씀들이다. 잠언 4장 24절이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지혜롭고 옳은 판단은 소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사를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영적상태가 행복하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신다. 개미는 두려움이 없지만 자기 일을 하고, 겨울을 준비한다고 말한다. 미리 준비하는 자세이다. 또, 잠언 6장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말씀하셨다. 남자들이도 마찬가지로이다. 음란한 행위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본능, 정욕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날마다 성령충만을 받지 않으면 날마다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 성령충만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예배드리는데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은 응답누리는 것이다. 스포츠, 여행, 모든 분야를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6) 잠언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잠언 전체를 통하여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성도들과 특히 후대 램넛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도전해야 하겠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다.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선택을 잘 했던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지혜이다.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것이다. 부드럽지만 다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옴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신중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두 번째에서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적이고 영적인 지혜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복음과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은 자가 있다.

(2)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충만과 말씀성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을 보겠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몰랐군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3) 인간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아무 걱정, 염려할 것 없다. 문제가 생기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를 인정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으며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다.

(4) 첫 예물을 드리면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3장 10절에서 11절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예물은 나의 우선순위,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곡식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5)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고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을 보겠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 날, 방향 필요 없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재앙과 두려움이 없다.

(6) 잠언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특히 잠언 8장 23절에서 31절의 내용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훑어보는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참 지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지혜, 그리스도)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궁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7) 마지막으로 잠언 전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이라는 단어를 ‘복음’과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어보는 것이다. 이때 잠언이 복음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고 완전한 잠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몇 개의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다. 잠언 2장 20절이다. “지혜(복음, 그리스도)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지혜(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그리스도)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그리스도)가 너를 지키리라”, 4장 7절에 “지혜(그리스도)가 제일이니 지혜(그리스도)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그리스도)을 얻을지니라”, 4장 8절에 “그(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그리스도)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그리스도)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참된 지혜와 명철은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결론으로 오늘은 하늘보좌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할 미션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이 모든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으면 다두고 갈등하고 응답받지 못한다.

1. 첫 번째 미션은 모든 성도를 70인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62가지 성경적인 전도훈련을 우리 교회 안에 한 개씩 셋팅해야 하겠다. 지속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셋팅해 가는 것이다.

2. 두 번째 미션은 7대 여정의 흐름 속에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는 것이다.

3. 세 번째 미션은 제1RUTC에서 제5RUTC를 실현하기 위해 3서밋을 갖춘 램넛트를 양육하기 위한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해브리 달란트를 키워주는 것이다.

4. 네 번째 미션은 300, 30, 3의 미션을 성취하는 전도제자가 지속적으로 한 명씩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소식, 구원의 길, 1분 영접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만 나와도 대단한 역사를 이루신다.

5. 다섯 번째 우리들의 절대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오직, 유일성,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천 명을 움직이기도 힘들다. 그런데 일천만 제자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중에 이러한 인물이 일어날 줄을 믿는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팅하기 위해 잠언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넛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언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많은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도들과 중직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유대인보다 더 큰 응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